

아토피와 수의사의 역할

손경수 소라동물병원장

얼마전 지방지에 광주J대 피부과장님의 아토피에 대한 기고문을 보았다. 전체 어린이의 15~20% 정도가 이 질환에 걸렸거나 현재 앓고 있다고 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원인을 유전적이네, 환경적이네 하면서 아직도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한 확실한 규명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에 대하여 큰 관심은 없었는데 외손자(현재6개월)를 키우게 되면서, 모유와 우유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아토피 비슷한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신세를 몇 번 지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딸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의 친구 아이는 우유만 먹이면 온몸에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 아예 먹이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답답하다. 아무리 소화장비와 기술이 좋다고 한들 주유소에서 로비를 잘하여 불난집에 기름을 팔아 붓고 있으면 불이 꺼지겠는가?

사람은 항생제 1알만 먹으려면 의사 처방받고 약국에서 처방대로 구매해 복용한다. 의사처방이 의무화된 뒤 각 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메스컴에서 보았다. 한데 식생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물을 소비자는 육류로만 보았지 거기에 잔류된 항생제나 호르몬제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축산물 1톤당 항생제 사용량(2002년)을 보면 스웨덴 31g, 뉴질랜드 40g 정도이나 한국은 911.36g이나 된다.

시골에서 40여년간 동물병원을 하면서 느낀점은 초창기에는 가축진료를 수의사에게 거의 의뢰하고 지시하는대로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가축 몇 마리만 키우면 반수의사가 되어 있다. 양축가가 약이 필요할 때 (인근에 있는 몇몇 가축약국을 보면)양축가는 형식적인 관리약사가 있는 가축약품에 가서 자기 처방이나 종업원의 권유로 항생제를 몇십kg이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용후 도축장에 가기까지 휴약기간이 있고 도축장에서 항생제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축산물이 도축장에서 항생제 잔류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된 우유만 먹어도 피부염이 된다는 아기는 항생제 잔류검사에서도 합격하였어도 성인과 어린아기의 내성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힘이 있으신 관계당국님들, 입법자님들, 약사님들 우리 자식과 후손들을 생각하시어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가축에게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투여할시 처방할 수 있는 처방권을 수의사에게 주십시오. 웃긴 이야기지만 약사님들의 이권에 손해가 간다면 하다 못해 약사님들께서 동물용항생제의 처방권을 가져가 판매시 기록하고 규제하여 시급히 오남용을 막아주십시오.

가정에 병아리 몇 마리만 키우면 항생제를 인의용 같으면 100인분 용량이상을 사다 먹입니다. 가축 몇마리만 키우는 집에 가보면 항생제가 보따리로 있습니다. 이런 축산물을 먹는 사람이라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의사님들 아토피가 인스턴트도 일부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만 육류에 항생제 잔류가 허용치 이하일지라도 계속 섭취하여 생기는 발암원인이나 아토피에 대하여서도 연구를 하여 주시면 어떨까 감히 제언합니다.

귀여운 손자를 키우면서 먹일 수 밖에 없는 식품에 항상 불안을 느끼면서 몇자 피력합니다.   

